

복식에 대한 검열방식 연구

-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와 방송복장심의 규제를 중심으로 -

안 선 경*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attern of Censorship about Costumes

- A Censorship about School Uniforms and Entertainer's Costumes -

Seon-kyoung Ahn* · Suk-Hee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0. 11. 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xistence of censorship in our country which was one of the method of wielding authority on bodies.

For the purpose, the definition of censorship was studied through the concept of 'Symbolic Violence' from Bourdieu and 'Panopticon' from Foucault. A censorship can be defined as "all kinds of structural, systemical and psychological control mechanism on specific expression in our society."

And follows historical consideration on censorship system from 1920's to now in our country.

The main subject consists of censorships on middle and high school uniforms and that of broadcasting deliberation about entertainer's costumes.

Key Words : 검열, 교복, 연예인 복장, 상징 폭력, 전방위 감시체계

Censorship, School Uniforms, Entertainer's Costumes, Symbolic Violence, Panopticon

I. 서론

Foucault¹⁾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훈육을 통해 개인의 신체는 사회질서 속에서 억압되고 감시와 검열을 통해 세심하게 형성된다. 신체에 대

한 검열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 복식은 '제2의 피부'로서 가시적인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식에 대한 강압적인 검열의 형태는 그 효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에 대한 자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문화적 검열은 출판·영상물 뿐 아니라 복식을 수단으로 하여 문화말살 정책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은폐시키고, 식민지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시하고 억압을 내면화시키는 기계(機制)로 작동하였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나 법적으로 검열제도가 철폐²⁾된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신체에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 행사 방식인 '검열'문화가 복식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신체를 통제, 억압하고, 스스로 '검열의 내면화'하고 있음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밝히는 데 있다. 복식 관련 규제가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복장용의 규정과 방송의 복장 관련 심의 제도는 우리사회의 현실적인 검열의 형태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검열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와 개념적 조작을 위해 사회, 철학, 문화 관련 서적들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고, 먼저 현재 교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10곳의 남녀 중,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생용의복장에 대한 교칙'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하여 각 학교별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의 다양한 검열방식을 조사해보고, 근대적 공간인 학교에서 개인의 복식이 어떻게 미시적 검열 대상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방송출연자의 복장관련 방송심의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1990년대 이후 신문 검색과 방송관련 잡지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증적 자료인 사진도 함께 이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복식의 표현 가능 영역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검열방식이 복식의 내용과 질을 획일화시키며 복식 착용자에게 있어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에 대한 미시적 권력의 행사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검열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

'검열(censorship)'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출판·

영상물이 부도덕, 음란, 이단적이거나 반정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적합 여부를 출판 전에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검사하는 일이다.³⁾ 검열의 대상은 문화 내 출판 영상물로 제한되어 있지만, 외부적 통제 행위인 법적 검열제도는 개인에 내면화되어 스스로 표현을 억제하려는 심리적 억압의 차원에서도 정의 될 수 있다. 즉 검열은 '한 사회 내에서 특정 표현에 대해 가해지는 구조적, 제도적, 심리적 차원의 모든 통제 메커니즘'으로 정의 될 수 있다.⁴⁾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 하에서 암묵적(暗默的) 합의이건 공식적 합의에 의해서건 간에 검열의 목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기 검열을 요구하게 되고, 만일 그러한 합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복식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문화적 특성과 규정 위반 시 처벌이라는 불이익의 내용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검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검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P. Bourdieu의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과 M. Foucault의 '전방위 감시체계(팬옵티콘:panopticon)'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을 우선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Bourdieu는 검열에 대해 법이나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표현행위에 가해지는 '상징폭력'으로서의 검열에 주목한다. 사회제도 및 구조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문화적 재생산과정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권력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 시스템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학교 시스템이 기회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와 배제의 고착화를 정당화함으로써 위계화 된 기존 사회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학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지식의 전달이라는 교육기능보다 지배계급이 승인한 하나의 문화만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폭력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폭력은 가시적, 직접적 폭력이 아니라 의미에서 '상징적 폭력'이다. 학교는 이러한 상

징적 폭력을 통해 기존 사회의 힘의 관계, 질서를 재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한편 Bourdieu는 국가론에서도 '상징폭력'과 '아비투스(habitus)'⁵⁾ 개념을 적용시킨다. 국가는 법, 교육제도, 사회의례 등을 통하여 사고방식과 정신 구조를 정형시키면서 이른바 국가정체성을 형성한다. 국가는 이 세계가 자연스러운 사회처럼 받아들여지도록, 국민의 논리적, 도덕적 순응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구조를 형성시키는 보편적 교육을 강요한다. 그리하여 기존 질서에 즉각적 복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종은 기계적 복종이나 계산에 의한 의식적 복종이 아닌 일종의 신체 성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즉 계산이나 의식의 층을 거치지 않고 신체 깊숙이 내재해 있는 성향을 일깨워 나오는 복종이다. 그리하여 결국 지배계급의 시각을 보편적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검열에 대해 Foucault가 주목하는 부분은 검열제도나 검열법과 같은 외부적 통제와 명령이 아니라 그러한 외부적 명령들이 내면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명령의 내면화'라는 개념은 외부적인 위협이나 통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억압의 효과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내면화(internalization)는 개체가 밖으로부터 부과되는 명령·규범·가치·기준을 자기 속에 흡수 동화함으로써 외부 권위와 자신을 동일화하고 그 권위에 전면 복속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명령의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Foucault가 제시한 '팬옵티콘(panopticon)' 모델이다. 1791년 영국 철학자 J. Bentham이 설계한 팬옵티콘은 특정 시설의 구조가 아니라 '근대 권력의 일반적 정식화'라고 할 만하다. 팬옵티콘은 감옥의 중앙에 감시탑이 있는 전방위 감시체계로서 이러한 감시상태 하에서 감옥 내에 있는 죄수들은 감시탑에 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치 감시자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외부에 있던 명령이 죄수들 내부로 들어와서 자신이 자신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통제자가 된 것이다.⁶⁾ Lacan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는 주체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Other)의 눈으로 자기(및 대

상)를 보는 '응시(gaze)'의 확립이다.⁷⁾

이 모델은 근대 이후 사회에서 권력의 미시화와 편재 현상을 보여 준다. 근대 이전의 권력이 소수 지배계급이나 군주에게만 귀속되었던 것이라면, Foucault는 근현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학교, 공장, 병원, 사회 내 여러 가지 제도들, 여타의 집단 및 개인들 등의 미세한 곳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권력이 없는 곳은 없으며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에 종속된다. 자기 검열이란 바로 이러한 명령의 내면화 과정인 것이다.⁸⁾

팬옵티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처벌사회라는 점이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고 통제의 사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화된 법보다는 규범들이 사회성원들의 행위양식을 조절하는 사회라는 것이다.⁹⁾

2. 복식 검열에 대한 사적 고찰

검열이란 하나의 억압적 행동이다. 따라서 검열 받는 쪽에서는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검열을 하는 쪽에서는 이에 응수하여, '검열이란 보호다'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즉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의 보호, 사회적 문화적 질서의 보호, 심리적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이 검열의 제1원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식민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복종시키기 위한 일제의 전략적 정책은 '보호와 진보'라는 논리를 앞세워 검열을 정당화하였다.

1920년대 전통문화를 말살하고자 시작된 일제의 문화정책은 우리의 전통이 비승리적, 비과학적인 것, 다시 말하여 후진적이고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낙후된 것으로 인식시켜 자발적으로 우리의 것을 버리도록 유도하였다. 이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주민들의 전통문화 말살과 일본의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한 노동력 착취에 정치 권력이 행사되었다. 당시 복식에 있어 가장 많은 계몽과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백의(白衣)페지는 백의 착용자의 관청출입을 금하거나 흰옷에 먹물을 뿌리는 강제성을 띤 방법이 동원되었다. 1933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경북에서는 색의(色衣)를 입지 않을 경우 인부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¹⁰⁾을 비롯하여

많은 기사들이 강제적인 의복 단속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가 산업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의복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백의가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복의 색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백의의 위생성을 버리고 대신 색의(色衣)의 경제성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¹¹⁾

1937년에서 1945년 전시체제기간 동안 국방적인 필요로 의료의 소비량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취해진 조치중의 하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원 및 학생과 일반 여성에게까지 규정된 형식의 의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복의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1940년 군복을 모델로 하여 표준복을 제정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기본 정신은 다음과 같다. "다종 다양한 복장에 비해 규격이 통일된 일종의 제복과 같은 상태가 지도하기에 효과적이며, 또한 전시에 병력의 증대는 군용제복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초래할 것이므로 평상시 민간인의 복장을 군복과 비슷하게 유사시에도 착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비의 절감을 꾀하려는 것이다." 즉 '軍民被服의 近接運動'을 통해 효율적인 국민지도와 경비의 절감을 위한 의도가 당시의 표준복 제정에는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의복의 형태 및 의료의 사용은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빈곤하고 어려운 한국인의 의생활을 더욱 황폐화하고 획일화시켰다.

의복 표준화로 인한 저고리길이 축소와 통치마 착용과 금속제 단추나 부자제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심지어 학생들의 교복에서도 형태를 水兵服 모양으로 변형시켰고, 양말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신지 않도록 권장하였다. 유사시에 군복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비상시의 복색으로 군복과 동색인 카키색을 장려하였다.¹²⁾ 남자의 경우 국방색의 국민복을 입고 전투모를 써야 했으며 머리도 박박 깎지 않으면 사상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머리를 깎게 했다. 여자의 경우는 운동상, 위생상, 경제상의 이점을 강조한 몸빼를 항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몸빼 必着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몸빼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공서나 공공집회장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전차와 버스의 승차도 금지하였다. 이처럼 실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강압적 규제는 내면화

되어 스스로 저항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흔히 'G.I.(government issue)문화' 즉 미군문화로 대표되는 50년대는 P.X.를 통해 외제 상품이 구입되었고, 사치품 유입을 막고자 밀수를 근절시켰으며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였다. 외제사치품을 배격하는 생활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간이복'이 제정되었다. 6.25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벨벳 치마가 유행하자 학교에서 벨벳 착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같은 해 '전시 생활 개선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시에 있어서 착용·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는 중요한 종목으로 외국산 의복지 毛物과 귀금속을 들고 있다. 이들을 판매하거나 또는 착용하면 처벌당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화장품, 담배, 일반음료까지 외국산은 전면 금지되었다. 의복지, 의류품 중 금지된 것은 외국산 즉 양단, 벨벳, 실크, 레이스, 조오겟, 나일론 제품, 모피, 목도리 등이었다.¹³⁾

전후 복구기인 1953년에서 1960년대 서민들은 군복 혹은 군복지를 이용한 의복을 계속 착용하여 군복은 물론 그 외 비슷한 색상 모두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검열조치들은 정치적인 정당성 위기나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폭주된다. 그러한 위기들에 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검열 가능성을 지닌 기관들이 활동하게 되고, 이내 하나의 검열 관계기관 협의체가 결성된다. 1970년대는 6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한껏 고양된 시기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어간 시기이기도 하다. 197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무릎 위 17cm 이상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는 과도 노출로 단속대상이 되었다.¹⁴⁾ 미니스커트와 함께 히피족과 장발 또한 '퇴폐풍조'라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마침내 장발족을 '풍기문란죄'로 단속 대상이 되어 길거리에서 강제 체발 당하는 수난을 당했다. 타인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준다는 점이 이들의 단속 이유였고, 남자의 장발, 여자의 과잉노출, 은어가 프린트 된 옷, 보디페인팅도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었던 청년문화의 새로운 기운을 유신정권은 뿌리뽑고자 했다. 유신 정권이 바랬던 것은 청년문화의 금지 자체였다. 기 보다는 젊은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방식

과 생활태도를 뿌리뽑고 사회를 다시 전쟁을 앞둔 병영과 같은 긴장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¹⁵⁾

1980년대 이후 학생들의 교복자율화와 다양한 국제화 정책들로 인하여 복식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방송매체의 파급효과가 사회적으로 커지자 방송출연자들의 복장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문민정부를 표방하던 96년에는 배꼽티를 비롯하여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단속하려다가 한 발 물러서 지도장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¹⁶⁾ 이유는 풍기 문란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성범죄 원인제공자에 대한 사전 처벌이라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 들어 검열에 대한 일련의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사고방식에 있어 70년대와 전혀 다를 바 없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경범죄의 처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검열의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난 80년간 존속해왔던 복장 규제에 대한 검열은 외형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검열의 방식으로 내면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복식에 대한 검열 방식

모든 사회는 적절한 의복에 대한 기준으로 개인의 의복행동을 제한하고 동조를 요구하므로, 이러한 규범에 어긋나는 복식은 규제와 비난에 부딪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에 의해 동조를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복식 규제와는 달리, 권력 기관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개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검열기제를 이용하여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복식 규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복식 관련 검열은 규제가 명시화되어 있는 학생들의 복장관련 교칙과 방송심의 사항 중 복식관련 규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권력집단이 개인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검사'란 메커니즘이 이용되는데, 검사는 일련의 기록체계를 통해 개인들을 인식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

로 바꿔 놓는다. 중·고등학교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용의 검사' 방식은 학생들을 교사들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고 교칙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어왔다.

1.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

지난 2000년 10월 4일 '귀밑 3cm'로 상징된 중·고교의 두발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넷 저항운동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전면 자율화라는 선언을 받아냈다.¹⁷⁾ 그 동안 교육부 훈령을 기초로 만든 각 학교의 학생 선도 규칙은 일제시대의 유산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학생생활지도를 이유로 '앞머리 3cm', '귀밑 3cm' 등 규정과 교복 착용을 요구해왔다.

1) 검열의 외적 규제

'학생용의 복장' 교칙 조사 결과 학교별로 규제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개는 두발, 복장, 신발, 양말,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분류하여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교칙위반 적발시 행해지는 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한 곳도 있었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이런 교칙을 명시하고 이행할 것을 강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기 검열의 방식으로 복장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된다. 교사가 정기적으로 용의 검사를 하거나, 수시로 교실과 그 외의 교내 공간에서 검사가 행해지고, 교외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교외지도라는 명목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감시하기 때문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자면 학생의 교복 착용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실한 노동자를 창조해내고, 국가적으로 정책적 법과 규칙을 잘 수행해내는 인간유형을 양성화하는데 두고 있다.

<표 1>의 내용을 보면 '학생 용의복장 규정'은 원칙과 금지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의 외의 뿐 아니라 내의까지도 학생다운 단정함과 깨끗함, 검소함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되는 복장에 있어 색상의 경우도 무채색 계열로 전체 내에서 개인의 두드러짐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말 착용시기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표 1> 중·고등학교 학생 용의복장 규정

내용 항목	용 의 복 장 규 정
두발	형태 : 여학생은 학생커트, 단발, 긴 머리 중 택1 이거나 주로 단발 원칙, 전체형태는 직선 길이 : 단발 - 앞머리는 눈이나 눈썹을 덮지 않도록, 뒷머리는 귀밑 3-5cm이거나 옷깃에 닿지 않도록 긴 머리 - 구체적인 길이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반드시 뒤쪽에서 하나로 단정히 묶을 것. 남학생은 스포츠 형의 조발 원칙, 길이는 윗머리 1-5cm이내, 옆, 뒷머리 - 기계 조발 장식물 : 머리핀, 고무줄은 검은 색이나 어두운 색, 핀의 종류는 실 핀, 똑딱 핀, 두께 1cm, 길이 6cm이하의 가는 핀 허용, 그 외 장식물은 금지 금지 : 퍼머, 염색, 무스나 스프레이, 핑크머리, 탈색, 고데, 드라이, 그리프 등의 사용금지 남학생은 완전삭발 금지
교복	형태 : 동복(10-3월 내지 4월까지), 춘추복(4, 5월과 9, 10월), 하복(6-8월) 혹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착용 시기 결정 스커트 길이 : 무릎 아래 5cm, 블라우스 : 흰색, 미색, 검정색, 회색 류의 무채색 계통의 폴라 티만 대체 착용 허용 외투 : 검정색이나 검정색 계통의 학생용 오버코트, 모피코트나 모자 달린 외투 및 재킷모양의 외투 금지, 이외의 가디건, 점퍼 스웨터 등의 덧옷 일체 금지, 길이는 치마 길이보다 짧거나 같도록 교표 : 교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선의 중앙 1cm 위에 부착, 항시 패용 명찰 : 상의 왼쪽 가슴 호주머니 선에 부착, 교외에서는 탈착 내의 : 색상은 흰색으로 하여 블라우스 속으로 내의가 보이지 않도록, 남학생은 여름철 내의 착용 의무화
사복	영어 문자 표기된 옷, 지나치게 컬러풀한 점퍼, 사치성 옷 등의 착용 금지 상의에 불필요한 부착물 장식 금지, 등교시 사복 지참 금지
체육복	동·하복 구분, 해당 수업시간과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만 착용, 등 하교시 착용 불가
신발	학생용 단화 기본, 경우에 따라 운동화 착용 허용 단화 : 학교에서 특별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뒷 굽 3cm 이하의 검정색 계통 : 특수 장식이나 샌들 류, 앞이 뽀족하거나 각진 숙녀용 모양 금지 운동화 : 흰색, 검정색의 단색 원칙 *실내화와 실외화는 반드시 구별, 신발 뒷 축을 꺾어 신지 말고 항상 깨끗한 상태 유지 신발 주머니는 형질로 만들어진 것 사용
양말	양말은 계절별 복장 구분에 따라 달리 착용, 경우에 따라 양말 구분하여 신는 시기는 학교장이 지정 동복 착용시 : 학생용 스타킹 및 검정색 긴 양말, 단 비치는 성인용 스타킹 금지 춘추복·하복 : 색(검정색, 흰색)으로 구분하거나, 동일하게 발목에 오는 흰색 카바 양말 남학생은 무늬 없는 흑색 또는 백색 양말 * 토시 사용 금지
가방	학생용 가방과 보조 가방만 허용 학생용 가방 : 들거나 매는 형태로 색상은 흑색 및 암청색 류, 등교시 반드시 지참 금지 : 007가방, 숙녀용 핸드백, 1회용 비닐 가방, 종이 가방, 고급 피혁가방, 묶은 끈 가방, 요란한 캐주얼 가방 등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팔찌, 브로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큰 머리핀, 머리 끈, 선글라스, 화려한 혁대 와 같은 장신구, 매니큐어, 화장 금지 미용목적의 귀뚫음, 눈썹정리, 성형수술 불허, 단 쌍꺼풀 수술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 락을 얻은 경우 예외 모자는 체육모, ES모, CS모, 한별단모, MRA모 등의 지정 모자 이외 금지

도 학교장의 재량이 명시화되어 있을 정도로 미시적 권력에 대한 내용이 교칙 곳곳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성장과정의 심한 편차를 가진 학생들에게 스커트 길이나 머리길이 등이 무릎아래 5cm와 귀밑3cm 등의 절대적 규제 사항은 반발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계절별로 지정된 교복 구분만으로 덧옷 착용금지 조항은 기온 차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학생용의복장 규정이 가진 비탄력적 경직성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이상의 규정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시대적 변화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발 시 처벌사항은 생활기록부 상의 벌점제, 반성문, 봉사활동, 체벌의 형태를 띠게 되고, 물품의 경우는 압수되었다. 두발 불량은 재검사하며, 긴 머리의 경우 위반 사실이 교내·외에서 3회 이상 적발 시 이후 긴 머리는 불가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교복을 착용했을 때 표현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많은 남학생들은 단추를 채우지 않거나 셔츠 뒷부분을 밖으로 빼거나 허용되지 않은 액세서리, 귀걸이, 심지어 코나 입에 피어싱(piercing)을 하기도 하고, 일부 여학생들은 화장을 하거나 스커트 길이를 짧게 변형시킨다. 이들은 다른 구두를 착용하거나 재킷 단추를 바꾸고 혹은 꼭 맞게 입거나 헐렁하게 입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복변형을 통하여 규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2) 검열의 내적 의미

일본의 경우 1885년 도쿄제국대학에서 처음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서구를 따라잡고 능가하자"라는 경제적 국가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정체성은 거대한 조직의 일부분으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의 교복 뿐 아니라 거의 국민 전체가 각자의 조직에서 자신의 소속과 역할을 밝히는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집단적 소속감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전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감시의 대상이 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¹⁸⁾

일본 교육부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Brian Mc

Veigh의 일본 학생들의 교복착용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Foucault가 언급한 훈련된 습관의 원리가 작용한다. 교복착용은 첫째, 개인의 행동을 최소한 통제함으로써 권위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고, 둘째, 매일의 반복적인 교복착용습관은 생산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경제적 명령이 요구하는 무의식적 반복성의 내면화인 것이다. 셋째는 교사와 학생, 선후배 관계에 대한 위계질서를 배우고 이런 계급질서에 대한 인식은 직장으로부터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복착용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각과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 그리하여 학교는 학생들을 미래의 노동자로 사회화 과정을 교육하게 되는 '전략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의 일본 학생들의 교복착용에 대한 견해는 우리에게도 상당부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 체제의 강요는 거의 불가피하게 그것의 전복을 위한 시도를 자극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스타일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학교라는 제도로부터의 탈출, '표준화'가 주는 안도감에의 거부, 기성세대가 부여한 학생으로서의 규범적 기준에의 반항 등 저항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⁹⁾는 관점이 교복변형도 마찬가지의 일반적 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칙 파괴의 '저항적 즐거움(resistive pleasure)'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규칙이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제멋대로의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종속자들의 동의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헤게모니적 힘의 하나로 본다. 따라서 규칙파괴의 즐거움 혹은 규칙의 자의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즐거움을 바로 피지배자들의 저항적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Michel de Certeau²⁰⁾는 피지배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지배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속하는 체계로부터 '작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적 수준의 전략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식민통치를 받는 토인들이 정복자에게 정면 저항은 불가능하지만, 정복자들이 부과하는 규칙, 법규 등을 교묘히 회피하고 그것을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복자들의 지배력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드는 저

항적 전략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교복이 의무적일 때, 교복이란 제도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교복 착용은 그 제도 속에 학생이 삽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교복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교복의 세부를 창조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 즉 스커트 길이, 바지의 재단법, 헤어스타일, 금지된 장식 등을 통해 교복을 학교의 권위를 시험해 보거나 그에 도전하는 시도를 해보는 일종의 선택된 전쟁터로 만든다는 것이다.²¹⁾

교복을 법적 제도화하여 단속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일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변형의 기준은 당시 유행하는 기성세대에서의 패션 아이템을 차용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외래 문화의 무분별적 숭배, 혹은 욕망의 표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매니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구 대중음악장르인 힙합(hiphop)스타일과 복고 스타일이다.

사회의 다양화는 공간에도 반영되기 마련인데, 다양화된 사회에선 소득이나 생활방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려는 성향을 보인다. 원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건 간에 독특한 사회특성이 되고 있는 점은 서울의 강남·북의 패션이 확연한 차별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헐렁헐렁한 힙합 스타일은 강남에서, 깡충한 복고 스타일은 강북에서 우위를 점했다.²²⁾ 90년대 초, 뮤지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힙합 패션 전도는 청소년들의 평상복 뿐 아니라 교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97년 교육부의 교내·외 생활지도 단속 내용으로 헐렁한 힙합 바지, 긴 허리띠, 머리 염색, 체형에 맞지 않는 큰 신발, 여학생의 입술연지, 향수 사용 등의 금지조항을 유추해 볼 때 교복변형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

<사진 1>은 강남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의 모습인데, 헐렁한 바지의 밑단 부분을 줄여서 입었고, 교복 밖으로 체크 남방을 레이어드 형식으로 착용했다.

1994년-95년 선글라스 같은 액세서리에서 시작된 복고 스타일의 유행은 97년 들어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는데, 진청색의 칠폰 나팔바지나 무릎길이 스커트, 칠폰 소매 셔츠나 꽃무늬 티셔츠에 꼭 끼는 재킷, 목에 맨 화려한 프린트의 짧은 스카프, 촌스러운

손가방이 대표적인 복고패션이다. 이는 기존 코디네이션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꺼병해 보이거나 아무렇게 막 입는 것처럼 입는 것이 특징이다.²³⁾



<사진 1> 강남의 교복 스타일

이를 추종하는 복고풍으로 변형된 교복 스타일은 상의의 어깨와 품·팔 길이를 줄이고, 스커트 폭을 협선이 드러나도록 줄여 입는 것이 특징으로 여기에 성인용 투명 스타킹에 두드러지는 흰색 양말과 자신의 발 사이즈 보다 훨씬 큰 운동화, 앞머리는 이마에 붙이고 뒷머리 중심부분을 부풀려 올린 형태로 전체적으로 의도적인 촌스러운 인상을 준다. <사진 2>는 강북의 여고생으로 교복의 상의와 스커트를 모두 몸에 꼭 끼게 줄여 입었고 성인용 스타킹에 헤어스타일은 긴 퍼머 머리를 하였다.



<사진 2> 강북의 교복 스타일

2. 방송심의 복장 규제

방송에 대한 국가 혹은 공공의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방송의 공익성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방송에 강제되는 것이 규제이고, 이 규제는 일반적으로 심의라는 법제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²⁴⁾ 그러나 많은 경우 정부나 국가에 의한 규제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검열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²⁵⁾

한국의 대중문화는 국가의 이해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성에 문제를 갖고 있던 군사정권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해줄 수단으로 대중매체를 집중 육성하게 되었다.²⁶⁾

19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 근대화를 위해 서구화가 불가피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대중매체를 통해 서구의 대중문화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서구적인 청년문화를 주도한 연예인들과 이들의 외래적인 대중문화물은 1973년 유신 이후 비윤리적인 것으로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즉 자주 경제와 자주 국방이라는 기치아래 고립적 민족주의의 추세가 강해지고, 독재를 위해 권위적 요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중문화에서도 유교적인 윤리 규범을 강요하는 영향이 높아진 것이다.²⁷⁾ 이처럼 대중문화는 헤게모니 쟁탈의 장이 되는데, 지배계층은 피지배층으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검열기제를 이용한다.

1) 검열의 외적 규제

TV를 통해 소개되는 서구풍조가 대중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자 1962년에는 방송윤리위원회가 발족하여 방송심의규정²⁸⁾을 마련하고 방송내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퇴폐풍조에 대한 사회적 검열을 엿볼 수 있다.

66년에서 70년의 규제 내용을 보면 노출에 관한 규제가 상당수 발견되는 데, 무용수의 과다노출에 대한 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속옷이나 나체를 코메디 등의 방송소재로 사용한다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졌다. 또한 방송윤리 위원회는 히피풍의 텔레비전 출연을 규제하기로 했다. 장발은 197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유행하여 자주 문제시되었다. 특히 75년과 76년 두 해의 규제내용 중 장발에 대한 경고가 30여건에 이르렀고 장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심의 기준까지 마련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남녀 성별의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긴 머리, 나)머리카락이 귀 또는 옷의 뒷 깃을 덮을 정도의 머리, 다)여자의 단발 형태(cut)로 보이는 머리, 라)파마형태 등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79년 2월에는 퇴폐풍조를 없애기 위해 “핫팬츠와 여가수들의 앞가슴 노출 드레스, 남자의 마고자 차림과 장발”등을 규제하도록 했다.²⁹⁾

1990년대 이후 스타 시스템의 팬들 층이 주로 10대에 한정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중연예인의 복장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가장 큰 검열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 연예인의 복장심의 규제에 따른 방송출연 금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대중 예술인에 대한 획일적인 감시 수단의 방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장 심의 규제는 그 정확한 검열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각 방송사별로 심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임의적인 성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연예인의 경우 가장 많은 심의 내용은 선정성으로 노출이 많은 여성의 복장이나 백댄서들의 신체 노출에 관한 규정이다. 또는 복장에 드러난 상표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도 있다.

남자연예인의 중 특히 락커의 경우는 긴 머리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3>남자 가수의 장발을 문제삼아 두건을 쓰게 하거나 머리를 묶고 출연하도록 하는 헤프닝에 대한 다양한 반발은 거세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삭발 또한 혐오의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다. 남성 가수가 치마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은 한국 사회에서 성구별의 보수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레게파마'나 힙합 패션은

서구적 무분별한 숭배라는 전통적 사고 방식의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사진 3> 연예인 장발 규제

1994년도에는 반사회적 도덕성 회복 운동의 영향으로 방송3사가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연자들의 머리모양, 복장, 액세서리 등을 규제키로 한 것이다. 규제 대상은 삭발 남녀 연예인, 남성의 치마 패션, 장발, 귀고리를 착용한 남성, 배꼽티 등 노출이 심한 의상 등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삭발 가수들은 방송출연 때 반드시 모자나 가발을 쓰기로 했으며, 장발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출연하고 이 때 위로 묶은 ponytail 역시 카메라 연출로 TV 화면에는 보이지 않도록 했다.

1997년 들어 방송공사는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복장, 장신구, 두발상태를 가진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시킨 데 이어 이 규제방침을 방송공사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 실시하기로 하였다. 규제항목은 남자 연예인의 경우 큰 귀걸이나 코걸이 착용, 레게파마, 지나친 칼라염색, 상반신 투명의상 및 과다노출, 여자 연예인의 경우 노브래지어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의상, 코걸이, 배꼽걸이, 장식용 문신, 지나친 칼라염색 및 칼라가발 등이다. 또 남·녀 공통사항으로는 지나치게 찢어진 청바지, 눈에 띄는 상표가 부착된 의상, 욕설 등이 인쇄된 옷, 검은 색 선글라스, 청소년들의 정서형성과 방송 표현 상 문제가 있다고 제작진이 판단하는 내용 등이다. 각 방송사

의 이런 '청소년보호조치'는 이 달 들어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과 몇년전 문제가 된 '빨간 마후라' 사건의 충격이 촉진제가 됐다. 말하자면 폭력, 탈선 및 빼돌어진 유행 행태 등 청소년들의 비행을 유도하거나 부추겨 온 주범 중의 하나가 방만한 쇼, 오락,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 4> 90년대 후반 10대들의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수 HOT도 머리색깔을 이유로 방송출연정지를 당했다.



<사진 4> 방송심의 규제 대상 복장

2) 검열의 내적 의미

검열의 내용이나 강압의 정도는 한국 사회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상하고 있는데, 1920-40년대까지의 일제 시기의 검열은 반일정서에 대한 규제, 50년대는 반공, 60년대는 군부독재에 의한 국가주도적 대중문화의 서구 편향적 태도, 70년대 들어 민족주의, 전통성 수호라는 이데올로기의 강조로 외래문화를 배격하였다. 80년대 후반 자본주의의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각하는 '개별화' 전략을 통한 X세대, N세대론까지의 세대 담론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대중매체는 '개별화하는 동시에 규격화하는' 기능이 중요해 진다.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 연예인의 복장 심의 규제에 따른 내용은 주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도덕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전시 행정적으로 강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성 장발의 경우 허용 논란 시비가

되는 것조차 지금은 비상식적인 거부감을 자아내지만 90년대 초 당시의 엄격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뒤로 묶거나 모자 속에 감추어서 출연하는 것을 허용한다던가 여성출연자의 배꼽 노출 의상 불가에 따라 얇은 비치는 천으로 배꼽부분만을 가리거나 배꼽만 가리고 그 외의 신체 부위의 과도한 노출은 허용하는 등 과 같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회적 시정 처분은 여전히 병폐라 할 수 있겠다.

90년대 이후 복장 관련 심의 규제의 특징은 70년대 규제 대상이 서구적인 모델이나 분위기 차용에 대한 규제였다면, 90년대는 랩(rap), 힙합(hiphop)과 자메이카 레게(regge) 스타일을 주요 모티브로 한 흑(黑)의 문화³⁰⁾에 대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신세대들이 '흑의 기호'를 차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흑인'의 스타일이 기성세대가 지닌 이중 가치, 즉 전통적 가치와 백인 유럽 중심적 가치를 한꺼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충격과 공포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아이들'이 흑인 스타일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 때문에 방송출연에 제재를 받게 된 것도 견제효과라 할 수 있다. <사진 5> 오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정부의 권위주의적 신보수주의가 합쳐지면서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를 풍기 문

란의 혐의로 고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지배 블록 기성세대의 반격인 것이다. 그리하여 기성 세대 주도하의 언론매체는 표상체제의 통제를 통해 '흑'의 이미지와 스타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검열하고자 한다. 보수적 언론매체들은 힙합을 심대의 폭력과 높은 문맹률, 마약사용 등의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어두움의 세력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만화와 같은 폭력적 언어(cartoon violence)와 옷차림, 행동양식이 폭발적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국가와 언론에 의한 감시 및 통제, 검열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진 5> 흑(黑)의 문화 규제 복장

<표 2> 문화적 산물에 대한 검열의 작동 기제 방식

검열 대상	출판·영상물	용의 복장 규정	방송 복장 심의 규정
외적 규제	부도덕, 음란, 반정부적,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의 보호, 사회적 문화적 질서들의 보호, 심리적 건강의 보호	학생 스스로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그 품성과 인격이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적 의미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작, 정치 권력의 보존과 유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정책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실한 노동인간유형 창조, 국가적으로는 정책의 법과 규칙에 복속하는 인간 유형의 양성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도덕성을 환기 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전시 행정적으로 강행이 이루어짐
처벌 방식	출판, 상영 금지, 저작자나 감독의 구속	생활기록부상의 벌점제, 반성문, 체벌, 봉사활동	방송 출연 정지, 금지
문제점	창작이 위축되고 문화의 내용과 질이 획일화되며 창작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유의 억압	개인의 특성이나 신체적 차이를 무시한 획일화된 규정 적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격과 자율을 규제	대중예술의 특수성을 무시한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완화 조치	90년대 이후 검열 철폐	두발 자율화	심의기준 완화

IV. 결 론

검열은 '한 사회 내에서 특정 표현에 대해 가해지는 구조적, 제도적, 심리적 차원의 모든 통제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식은 그 시대의 문화적 생산물이며 특수 목적에 의한 복식 규정이 명시될 경우, 규정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하기에 복식 착용자는 스스로 대타자(other)의 '응시'를 언제나 의식하는 검열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에 대한 검열은 우리 사회 개인의 신체에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 행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행사되는 국민 청소년 용의 복장 규정과 복장관련 방송심의 규제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검열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는 Bourdieu의 '상징 폭력(symbolic violence)'과 Foucault의 '팬옵티콘(panopticon)' 모델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1920년대부터 시작된 문화적 검열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전통문화 말살과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한 노동착취라는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은폐한 채 '보호'와 '진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었다. 이에 개인의 신체를 통제·감시하는 검열대상으로 복식은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작용하였는데, 해방 이후는 외제 사치품 배격, 국산품 애용을 강조한 검열이 행하여졌으며, 70년대 정통성에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군사정권은 자주 경제와 자주 국방이라는 기치아래 고립적 민족주의 추세가 강해지고 독재를 위해 권위적 요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중문화에서도 유교적인 윤리 규범을 강요하는 성향이 높아졌다. 이에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된 히피풍의 유행에 대해 장발과 미니 스커트를 '퇴폐풍조'와 '풍기 문란'이란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단속시켰고, 80년대 중반 이후는 방송출연자들의 복장을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 용의 복장규정' 조사 결과 교복은 학교별로 규제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개는 두발, 복장, 신발, 양말, 가방, 액세서리로 분류하였고 이에 불응시 처벌 규정도 명시하고 있었다. 교복 착용은 개인의 행동을 최소한 통제함으로써 권위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고, 반복적 착용 습관을 통해 국가의 정치 경제적 명령이 요구하는 무의식적 반복성의 내면화이

며, 교사와 학생, 선후배 관계에 대한 위계 질서를 배우고 사회에 나가 미래의 노동자로서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규칙 파괴의 '저항적 즐거움'을 갖게 하는데 그들은 교복의 변형을 통해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항적 전략을 행사한다. 90년대 이후 변형의 특징은 강남은 힙합 스타일, 강북은 복고 스타일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적 '차별화'와 '계급화'를 통한 동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서 시작되었고 국가의 이해에 따라 방송 출연자의 복장에 대한 심의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모를 겪어 왔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 연예인의 복장 심의 규제에 따른 검열 내용은 주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도덕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전시 행정적으로 강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방송심의 규제의 특징은 단순한 서구적인 모델에 대한 규제가 아닌 문화자본의 상품화 전략에 의해 부각된 흑(黑)의 문화 착용에 대한 기성세대의 통제,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근대사회 이후 생겨난 검열에 대한 의미는 단순한 금지나 규제의 법적 차원에서 의 제재만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미시적 부분에서 '복식'이라는 상징적 매개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력의 작동기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사회 다양한 형태로 행사되는 복식 검열에 대한 저항과 일탈이 기성세대의 논리에 저항하려는 신세대 논쟁을 통해서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복식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대항 담론이 표출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배제와 금지, 종속과 동질화가 아닌 개방과 자유, 차이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1) Mi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8, p.317

- 2) 한인섭, "검열과 자유와 책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7년, 봄호, pp.57-60.
- 3)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029.
- 4) 현혜영, "검열에 대한 담론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7, p.28.
- 5) 아비투스는 사회질서와 권력을 사회적으로 객관화시켜 스스로 인정하도록 인간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제이다.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1998, pp.114-117.
- 6) Michel, Foucault. 오성근 (역), 앞의 책, pp.295-305.
- 7) 도정일,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나니: 검열의 보이지 않는 가위손에 대하여", *문학과 사회*, 1997년 봄호, p.44.
- 8) 현혜영, p.26
- 9) 권영숙, "미셸 푸코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p.55
- 10) 동아일보, 1933년 3월 7일
- 11) 손명임·김진구,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연구", 『복식』, 14호, 1990년, 5월, p.160.
- 12) 남윤숙, "한국 현대 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복식』 14호, 1990년, 5월 pp.105-106.
- 13)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p.275.
- 14) 신소윤,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42-43.
- 15)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9, pp.238-240.
- 16) 현재 1996.10.4, 93현가 13, 91현바 10(병합)
- 17) 중앙일보, 2000년, 10월 5일
- 18) McVeigh, Brain., "Wearing Ideology: How Uniforms Discipline Minds and Bodies in Japan", *Fashion Theory*, Vol.1, Issue2, 1997, pp.200-203.
- 19) 남궁윤선, "주거지역에 따른 청소년 내 하위집단들의 복식문화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23, No.5, 1999, p.5.
- 20) Fiske, J.,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Unwin Hyman, 1989, p.32.
- 21) 박명진, "즐거움(pleasure), 저항, 이데올로기",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년 12월, 제13권, 제2호, pp.67-95.
- 22) 중앙일보, 1997년 2월 11일, "교육부 지도 강화 권유", 동아일보, 1997년 3월 27일, "여중고생 '교복개조' 유행...치마는 짧게 블라우스는 꼭 끼게", 조선일보, 1997년 4월 18일, "힙합 바지-염색머리 단속한다.(힙합패션 단속초치)", 동아일보, 1997년 5월 13일, "서울 중·고생 패션, 강남은 '힙합', 강북은 '복고'", 주간동아 205호, "강남은 오렌지, 강북은 탱자"
- 23) 동아일보, 1997년 5월 13일
- 24)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p.12.
- 25) 이인희,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등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pp.11-12.
- 26) 강준만, 『대중문화의 길과 속』, 인물과 사상사, 1999, pp.35-43.
- 27) 강현두 외,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6.
- 28) 방송심의 규정의 기본원칙 제6조는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그 품성과 인격이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방송인 클럽(편), 『한국방송보도 70년사』, 한국 방송인 클럽, 1994, p.806.
- 29) 조선일보, 1979년 2월 25일
- 30) 전규찬, "흑의 문화 구성 과정을 둘러싼 담화정치", *언론과 사회*, 1994, 여름, 제4호, p.96-97. 본문에서 사용된 '흑(黑)'의 개념은 협의로는 '흑인'을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단순한 인종적 차원에서의 규제라기 보다는 흑·백의 상징적 문화 논리로 보기 때문에 '흑'이란 표현이 흑인 이상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